PART 2 영원한 삶을 위해 당신의 구주 예수를 만나라

6. 궁극의 적 : 사탄과 맞서심

"요즘 세상에서 사탄의 존재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는가"

- 예수님은 그럴싸한 인생모델이 되기위해 오신 게 아니다. 중요한 인생 질문의 답안 예시를 주기위해 오신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런 질문의 답을 알려 주는 스승도 아니다. 그분은 구주로 오셨다. 즉 중대한 의문들의 답이시다. 우리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오셔서 대신 해 주셨다.

세상을 바꾼 두 사건

- 우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보자. 역사상 세상을 뒤바꾸어 놓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시킨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바로 세례 받으신 일과 곧이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일이다.
- 세례와 시험이 '그때에'라는 한 단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철석같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사막으로 가셨다. 큰 복과 성공 뒤에 시련과 유혹이 찾아왔다.
- 삶에도 줄곧 성공과 기쁨과 복만 보장될 수는 없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여건이 순탄해도 결국 무언가 끼어들어 삶을 망쳐 놓는다. 최고의 재능과 성실함과 기술을 갖춘 사람도 삶의 질곡을 피할 수 없다.

꼬일대로 꼬인 인생을 살다

-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에 뒤이어 악과 유혹과 광야와 처참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따라온다. '그때에'라는 한마디가 대단한 단어다. 마태는 우리에게 거의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다. "잘들으라. 시련과 환남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는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려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선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성경이 말하는 악은 과학의 단견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 미묘하다. 제도적 불의와 개인적 무지 와 생리적 불균형 외에도 세상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정말 존재하며, 그 모두의 배후에 하나의 초자연적인 인격체가 존재한다.우리가 마음 깊이 고수하는 단순한 논리가 있다.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하지만 귀신의 세력은 분명 존재하며 착하고 경건하게 살수록 오히려 그 세력을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할 게 당연하다. 본문의 세례와 시험 기사가 보여 주는 게 바로 그것이

다.

- 하느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광야 저편에 숨겨 두셨다. 고난을 인내로 견딘 욥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돕는 귀감이 되었고, 예수님도 이 시험에 통과하여 마침내 역사를 바꾸어 놓고 세상을 구원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정체를 더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7. 두 분의 대언자 : 성령을 보내심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인 나에게 굳이 대언자가 필요한가"

-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영

-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요한 14, 9).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훼방이 닥칠 것을 아셨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어간다는 희망이 있을까? 다행히 희망은 있다. 예수께서 그것을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공개하신다. 그분의 말씀이다.
- 예수께서 몇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영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구약을 읽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하느님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운행하는 힘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단지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이 막연한 신적 에너지가 아님을 보이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 죽으신 후에 - 아버지께서 한 인격체를 대신 보내신다고 말씀하신다.
- 이 인격체를 통해 제자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볼'수 있으나, 그분이 몸으로 계시지 않기에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가시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 인격의 매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임재하신다.

심판대 앞에 서다

-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신의 눈이 어디선가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안다(알면서도 억압할 뿐이다)그 눈은 무한히 예리하고 공정하고 정직해서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변명은 다 소멸해 버린다. 문화나 가족이나 감정이 괜찮다고 해도 잘못이 존재함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상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치에 어긋남을 우리는 안다. 자연스러우면서 잘못 일 수 있으

려면 '초자연적'판단 기준이 존재해야 만 한다. 여기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어딘가에 우리를 주관할 정의의 법정이 존재함을 우리는 안다.

-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삶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딜레마가 생겨난다. 만일 성경이 틀려서 신도 없고 정의의 법정도 없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반대로 정의의 법정이 존재한다면 당신과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자신의 도덕 기준에조차 부합하게 살지 못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보라. 만인이 수긍하는 원리이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 우리는 성경에 말한대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함을 마음 깊이 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성경 말씀 속에는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이 대언자에 함축된 첫 번째 내용이다.
- 두 번째 내용은 그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도덕적 행실의 본보기나 사랑의 지지자도 아님이 암시되어 있다. 물론 예수님은 본보기와 지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정의의기준이 존재한다면 - 우리 양심이 그 사실을 증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대언자다.

설득력 있는 대언자가 필요하다

- 이제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에 한 말의 위력이 느껴질 것이다. 그는 정의의 기준과 본인의 양심 앞에 유죄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 대신 하늘 아버지 앞에 출두하실 완전한 대언자이시다. 이 은유를 한 걸음 더 끌고 나가야 한다. 법정에 기소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유창하고 똑똑한 대언자가 아니라 설들력 있는 대언자다.

仲保자 그리스도

* 仲保 :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이른다.

仲 : 버금,가운데　　保 :지키다, 돕다

- 변호사가 배심원이나 판사의 심금을 우리거나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교묘하게 말꼬투리를 잡아서는 승소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궤변이나 감정 조종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거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 있다.
- 그렇다면 그분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요한1서 2장 2절에서 요한은 우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비를 구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은 무한한 자비이지만, 그 자비는 이미 베풀어졌으므로 예수님이 구하실 필요가 없다. 요한1서 1장 9절(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에서 보다시피 그리스도인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이 자비롭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의롭지 못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얻어내는 최선책은 법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게 아니라 무죄의 당위성을 법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직하고도 소신 있게 “법이 이러하니 내 의뢰인은 법대로 방면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법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 자체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논거가 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오나 내가 그 죗값을 치렀나이다. 여기 죽음의 흔적인 내 피를 보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사오니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심은 의롭지 못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게 아니라 정의를 구하옵니다.”
- 예수님의 주장이 옳을진대 이거야말로 무오한 논거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용서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 당신은 평생 저울에 선행과 공로와 절제된 삶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려 하느님의 법의 무게를 상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법은 당신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율법 쪽이 더 무거워져 파멸을 면할 수 없다. 하느님의 법이 늘 유죄 쪽을 가리키므로 당신이 이를 상쇄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보태야 한다.
-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대언자시면 이제 하느님의 법이 완전히 당신 편이 된다. 율법이 저울의 당신 쪽에 향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저를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당신의 계좌에 전가된다. 이제 당신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이자 “곧 의로우신” 분이라 칭한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보신다는 뜻이다. 저울에 당신 홀로 있으면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도 온전하고 옳고 아름답고 의롭다.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당신은 연합해

있다.

-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대언자 곧 성령의 직무는 무엇인가? 성령을 또 다른 대언자 칭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령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를 아는 중요한 단서를 주셨다.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 첫 대언자는 하느님께 당신을 대변하시지만 두 번째 대언자는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고별 설교 내내 예수께서 밝히셨듯이, 성령의 직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셨으나 사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에 대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깨우쳐 주신다.
-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다. “너는 죄인이니 죄인답게 겸손히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하느님 집에 입양되어 받아들여졌으니 이에 걸맞게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인정과 안락 욕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루신 일과 그 결과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간청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보고 그 사랑의 임재를 알게 될 것이다.
- 함축된 의미가 보이는가?사도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떠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가지는 그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된다. 일례로 우리는 가끔 예수님 시대에 살며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지금처럼 위력적으로 세상에 부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길고 넓고 깊은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신다. 다시 말해 그순간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보다 지금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臨在와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다.
- 臨在 : 그리스도의 현존, 臨: 임하다, 군림하다

은혜의 방편, 성령의 역사하심

-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영적 억만장자인데 겨우 지폐 몇 장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의 직무는 심중의 법정에서 당신을 설득하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논거로 제시하여 당신이 부자임을 밝힌다. 그리

고 당신의 직무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 어떻게 하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이는 방대한 주제지만 당신이 신자라면 '은혜의 방편' - 혼자 혹은 공동체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기도 , 예배,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등 - 에 힘쓰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役使하신다.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 하면 두 번째 대언자가 역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면 몸만 자리를 차지할 뿐 그분의 교훈과 위로와 조언과 변호에 귀를 닫는 것이다.
- 두 번째 대언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손해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니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
- 세상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 우선 평안을 얻으려면, 인생의 중대한 질문들을 너무 오래, 많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평안'은 다분히 그런 식이다. 고달프고 잔인하고 덧없으며 결국 죽으면 끝나는 삶에 대한 생각을 그만 두라고 한다. 이와는 정 반대로 예수님의 평안은 생각을 떨치고 실재를 무시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생각하며 실재에 주목할 때 찾아온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복은 보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생의 어둠을 이겨낼 진정한 생각거리를 주신다. 그러나 세상은 "콧노래나 크게 부르며 눈길을 돌리라"고 말할 뿐이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한결같지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뀐다.

성령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다

-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옳다, 예수님이 너의 대언자시니라. 아름답지 않으냐? 그분을 믿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그런 당신을 하느님은 티 없고 흠 없는 존재로 보신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내 지은 모든 죄 저 원수 조롱하나
이 많고 많은 죄 주 모두 사하셨네

8. 순종하시는 주님 : 십자가에 죽으심

"왜 신이 죽어야만 했는가"

차마 감당하기 힘든 슬픔

- 예수님의 정체가 주장대로 - 영원히 선재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느님이라면 - 그 무엇에도 크게 놀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도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니 모든 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셨을 텐데 놀랄만한 일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놀라셨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셨다. 기도하러 가시던 길에 예상 밖의 암흑과 섬뜩함이 예수님을 덮쳤고,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주저 앉으실 것만 같았다.
- 한 번 생각해 보라.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책이 기록될 즈음에는 잘 알고 있었듯이, 놀랍도록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하게 고문과 죽음을 맞이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것이 이교도 무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보다 고난과 죽음을 더 잘 감당해 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손을 들어 기도했다.
-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따르던 이들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 반응하신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으셨고, 담담하거나, 초연하거나 평온하지도 않으셨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 마태와 마르코와 루카가 자기네 신앙을 창시하신 분의 생애를 지어냈거나 미화했다면, 무엇을 위해 임박한 죽음 앞에서 대다수의 제자들보다 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시는 분으로 그려냈겠는가?
-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고뇌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그리스도의 잔

- 성경에서 '이 잔'은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느님의 사법적 진노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의 순교자들 보다 고상하게 죽음을 대면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들 중 누구도 이 잔을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친히 이 잔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그분은 자신의 육체적 고문과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악과 죄에 대한 하느님의 충천한 진노를 받게 되심을 아셨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느님의 사법적 진노가 예수님께 임한 것이다.
- 이 진노가 남김없이 다 부어진 것은 이튿날 십자가에서였지만 - 그때 그분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다. -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진노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주석가들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한다. 이 사법적 진노는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로 하느님의 부재라는 고문이었다.

최후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싸움

-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는 데 갑자기 나락이 보인다. 하느님 아버지가 없고, 임재도 없으며, 어떠한 교제도 없다. 천국 대신 지옥이 눈앞에 열릴 뿐이다. 이 무한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해야만 한다. 성자와 성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에 비하면 부부의 사랑 관계는 망망대해 앞의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잃으셨다.
- 그런데 그분의 곤경은 그보다도 더 심했다. 사랑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무한히 능가하듯이 하느님의 진노도 인간의 분노를 능가할 수 밖에 없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의 태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다는 게 무엇일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능성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절대적 고통의 원인, 하느님과의 단절

-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에 산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충분했다. 땅에 떨어진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었다.

우리가 찾던 참 사랑이 여기 있다

- 하느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만인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의 원형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분은 항상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다.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다. 모든 인간을 통틀어 오직 예수님께만 그분이 다르게 말씀하신다.
- 첫째 아담에게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담에게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신다.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다. 아버지는 사실상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너를 버리고 외면하여 네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어 가실 때도 예

수님은 그분을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셨다.그분은 버림받는 중에도 순종하셨다. 시인 조지 허버트도 십자가를 나무로 칭하며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 둘째 아담의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바로잡혔음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몫의 죽음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까지도 사셨다.스코틀랜드의 사역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말마따나 "그분은 죽으시는 구주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의 혜택까지 입는다. 희생뿐아니라 의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듯이 그분의 행위도 우리의 행위로 보신다.
- 예수님은 평생 온전한 삶으로 하느님께 순종하시고도 그 능동적 순종 때문에 여기 동산에서 엄청난 도전에 부딪치셨다.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는게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반응하셨다.
- 첫째, 동산의 예수님은 비할 나위 없는 정직의 표본이다. 그분은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가셨다.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아시면서도 변함이 없으셨다.
- 둘째, 예수님은 기도의 위대한 모범이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감정과 갈망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신 것이다.그분은 경건한 척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 번이나 아버지께 차라리 구원 계획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꾸밈이나 숨김이 없다. 그러면서도 주저 없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뢰신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느님 중심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하시다
- 셋째, 여기 동산에 사람을 인내하는 엄청난 본보기가 있다.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반문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몹시 무거워 친구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부탁하셨건만, 와 보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놀랍지 않으신가?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것이다. 깊은 고뇌 중에도 그분은 용케 무언가를 찾아내 제자들을 인정해 주신다. 그날 밤 제자들이 잘못한 행동이 수두룩한데도 그분은 한두 가지 옳은 점을 찾아내 지목하신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예수님은 너무 선하셔서 아무도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단지 모본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느리지만 확실히 자신의 형상을 닮아 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까지 주신다. 역설이지만 그분을 모본이 아닌 대속물로

보아야만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입어 그 모본대로 살아갈 수 잇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볼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 모든 일을 주님은 모본이 아닌 대속물로서 당신을 대신해 당하셨다. 그 사실을 알면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와 가장 깊게 관계한다. 거기서 새 힘을 얻어 당신도 무력한 자기연민과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시련에 맞설 수 있다.
- 예수님의 코앞에서 잔을 들고 “이 사람들을 위해 정말 이 잔을 마시려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느님을 생각해 보라. 이에 예수님은 “예‘라고 답하신다. 이제 당신도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마다-”내가 이런 잔이나 마시고 있다니“-이렇게 자신을 다독일 수 있다.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의 잔과는 전혀 달라! 그분이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주님은 저를 위해 무한한 고난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훨씬 이런 고난쯤 당연히 주님을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형벌만 남았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주 최악의 일까지 다 감당하시고도 그 사랑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무엇으로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9. 아버지의 오른편 : 승천의 의미

“승천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계시면 안 되었는가”

승천의 참 의미

- 처음부터 승천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분명 수수께끼였다. 나아가 승천은 우리에게도 당혹스럽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기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이다. 승천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와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려오신‘ 성육신이 있었으니 ’되돌아가시는‘ 승천도 있음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승천 때문에 우리 구원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와닿지는 않는다.
-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러니 승천에 대해 사도들이 결국 터득한 내용을 살펴보자. 신약 여러 곳에 그들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승천이 신학적으로 무엇이며 둘째,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한다. 우선 승천이

란 무엇인가?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왕위에 올라 우리와 더불어 온 세상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서신 사건이다. 승천의 고나건은 그분이 가신 곳이 하늘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별과 행성이 있는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셨다. 천국은 우주 궤도보다 훨씬 심오한 세계다.

- 예수님이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셨다면 그냥 사라지실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러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예컨대 엠마오 도상의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셨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는 구름 속으로 떠올라 아득히 저 위로 멀어지셨다. 왜 그러셨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대관식과 같은 이유에서였을 수 있다. 공간적 상승은 높아진 권위와 관계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우주적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물리적으로 재현하셨다.
- 그 일은 무었이었던가? 이제 유일한 신인(神人, God-man)-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 -이신 그분은 새 왕이자 인류의 머리로서 좌정하러 가셨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학은 우리를 사고와 상상의 틀 밖으로 떠민다.

영광스런 종말을 향하여

-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은 '육신이 되'실 대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부상과 죽음을 면하실 수 없을뿐더러 시공의 제약에도 매이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졌고 평소처럼 음식을 드셨다. 루카복음 24장 39절에 그분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니는 있느니라"라고 하시며 자신이 옛너히 인간임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달라져 있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나타나셨고 그냥 사라지기도 하셨다. 그분은 여전히 인간이셨으나 근본적 변화를 겪으셨다.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바오로의 말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분처럼 부활한다. 그때 우리 인간의 몸은 죄와 악에 망가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보강된다. 썩거나 죽지도 않는다.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과 감각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 승천으로 달라진 게 또 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아버지의 임재 속에 들어가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둘째 아담이고 우리의 대언자시지만 이제 한없이 영화로워져 그분이 하시는 일마다 우주적 규모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ㅇ영광 중 빛나네"라고 한 찬송가 가사와 같다. 그분은 "천국의 충만한 영광 속에 들어가 천국 생활에 온전히 적응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시공의 제약을 일체 벗어난다.그분은 이전에 하시던 모든 일을 여전히 하시지만, 승천하신 지금은 어느곳의 누구라도 그 일을 동시에 접할 수 잇다. 승천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밀하심과 지도와 변호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두를 확대된 상태로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중보 사역을 저극

지속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되 이제 성령을 통해 어디서나 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되 이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사-이끌고 섬기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베푸는 등의 은사-를 통해 교회 전체를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상담하고 지원하시되 이제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신다

- 승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나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다.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처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셨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손을 놓으면 맞잡은 손보다 더 좋은 것을 주리니 곧 내 마음이 네 마음 안에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에페소 2장 6절에 따르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신비롭게도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적어도 이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감정 -마음속 심연의 갈망과 동경-이 그리스도와 생생히 교류하며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령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분의 임재는 선택된 집단 즉 신비롭게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거나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도덕적으로 흠 없는 성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예수님이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천국에 입성하신 목적은 누구의 삶 속에나 들어가 밝고 생생하게 사랑과 인격적 소통을 나누시기 위해서다.

둘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격적이실 뿐 아니라 권능자시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다. 에페소서 1장에 보듯이 성부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악한 일만 아니라 작은 일도 그분의 계획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셋째, 승천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느님의 정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뜻이다.

스테파노가 알고 있던 것

- 사도행전에 설교자 스테파노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는 날조된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진다.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는 문득 환상을 보며 말한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시지않고 그를 위해 서서 변호하신다. 스테파노의 얼굴이 시종 천사와 같았다고 했다.
- 스테파노는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승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승천의 의미를 아는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영영히 살아 계셔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신다.

10. 마리아의 용기 : 미리 만나지 못해도 순종함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따르는 대가가 필요한가"

마리아 이야기

-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고 감동적이다.

예수님의 정체

- 본문에서 예수님의 호칭은 그분이 단지 하느님을 따르신다는 뜻 이상이다.천사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덧붙인 데서 알 수 있다. 영원하다니? 이어 천사는 마리아가 믿기 힘들 줄 알았던지 같은 말을 다르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반복한다. "정말 영원하다는 뜻이니라"라는 말이다. 요컨대 이 약속대로 태어날 아이는 정치적 왕일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유한한 인간 이상이라는 암시가 실제로 풍긴다.
- 천사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말한다. 신비롭고 매혹적인 말이 아닌가?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다시피 이 영원한 초자연적 존재는 기적적 출생을 통해 세상에 오신다. 하느님의 그 아들이 이름이며, 그는 단지 성품이 하느님을 똑같이 닮아서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하느님의 신성 자체가 물리적 형태로 잉태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태어날 이는 완전히 거룩하여 조금도 죄가 없으며 신이자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신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으며 놀란 발언이다. 이른바 성육신 교리의 멋지고 간명한 요약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성과 육신을 취하여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느님이 성육신하셨다.
- 신에 대한 히브리인의 관념은 타문화와 매우 달랐다.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성경

말씀은 만인 안에 불어넣으신 하느님의 생기가 그분께 더 많다는 뜻이 아니다. 히브리인에게 하느님이란 만물의 일부인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만물 위에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영원한 창조주시다. 인격적으로 내재하면서도 무한히 초월적인 유일신이시다. 이런 하느님관을 품고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었다.하지만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인식하신 자신이 정체의 중핵이며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깔려 있다.

- 삶은 힘든 결정의 연속이며,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치하다. 그런 식으로 많은 수고가 덜어질 것 같겠지만, 종교가 다 대등하다는 개념은 완전히 허구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주장이 있으며 더 포용적인 듯한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특히 심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태고지는 예수님의 배타성을 우리 면전에 들이대며 반응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기에 많은 수고가 수반됨을 보여준다.

마리아에게 벌어진 충격적 사건

-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이었던 데는 신학적 이유 못지않게 사회적 이유도 있었다. 당시 마리아는 열네 살쯤 되었고 아주 가난했다.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던 장면에서 그녀의 사회경제적 계층의 증거를 볼 수 있다. 그 예식에 드려지던 제물은 가정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랐는데 예수 일가는 극빈층이 드리던 새 두 마리만 드렸다. 마리아는 시골뜨기에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오명까지 떠안았다. 그런데 혼전 임신의 오명을 쓴 이 시골 소녀가 오늘날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들었다. 그녀는 왜 위대해졌는가? 하느님과 그분의 메시지 앞에 보인 반응 때문이다. 그녀의 반응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마리아는 생각했다.논리력을 구사했다.마리아가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했다. 여기 “생각하였다”로 옮겨진 헬라어는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한다는 의미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마리아가 이해하려 애썼다는 뜻이다.

왜 그래야 했을까? 마리아는 유대인이므로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녀의 기존 상식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한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시내산의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개념은 논리상 불가능할 뿐더러 유대인의 도덕 감정에 어긋났다.이렇듯 마리아는 현대인과는 다른 종류의 이성적 장벽 때문에 에언의 메시지를 믿기 힘들었으나 그 장벽도 우리의 장벽만큼이나 높았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어려운 만큼만이나 마리아도 그 나름대로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태고지는 모든 인식의 틀과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이 소녀의 태를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선언을 믿자면 엄청난 장벽이 따른다. 세상 어느 지역에도 그런 장벽이 있었던 시기는 역사상 없었고, 그 개념이 시대의 보편 인식에 편히 들어맞은 적도 없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모든 문화의 내러티브에 역류하며, 치열한

지성의 구사를 요구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예수께서 회의론자 나타나엘에게 하라고 하신대로 했다. 증거를 따져 보고 주장의 자체적 일관성을 저울질하여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능히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성을 구사하여 기독교 메시지를 저울질 해야 한다.

둘째, 마리아는 의심을 솔직히 표현했다.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역시 그녀는 어수룩하지않다. "천사의 말이니 무조건 기적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라고 하지 않는다.오히려 그녀의 반문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이다. 마리아는 질문으로 천사에게 정보를 구했는데, 이는 확실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바꿀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은 믿음에 열려 있다. 정말 얻고자 하면 정보와 확실한 논증을 적잖이 얻을 수 있다.

-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마리아가 의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천사의 입에서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이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 37)

셋째, 마리아는 완전히 順服했다. 물론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했다. "대저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녀는 결단을 내린다. 사실 천사의 그 말은 확실한 논증이다."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을 믿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 오셨다면 왜 이 일인들 못하시겠느냐."마리아가 등기에도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한다.

- 하느님이 요구하실 일을 당신이 미리 다 알 수는 없다. 예컨대 거짓말 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직장을 잃지만 거짓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그런 혹독한 대가가 수반된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결심이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다.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다.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

요셉의 생각

-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여 이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뒤따르든 감수하겠습니다."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말 그대로 둘 사이에 모시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 그분과함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보여주는 답은 용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다.
-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명예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서 시골 소녀의 혼전 임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느님이 꼭 그럼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었다.

내 생각에 이는 그분의 이런 말씀이나 같다. “나는 세상의 당연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하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보낼 구주와 왕은 왕궁의 요람에서 유명한 권력자에게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의 여물통에서 오명을 쓴 시골뜨기에게 태어나리라. 이 원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서 예수는 약함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얻으리라. 너희 삶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도 다분히 똑같은 처우를 맛보겠으나 나의 구원은 이러하니 곧 고난은 영광을 낳고 죽음은 부활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명예가 되리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장차 자신들에게 해 주실 일을 기꺼이 그분께 드렸다.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들도 하느님이 부르시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삶의 통제권을 내려 놓고 조건을 버려야 한다.” 만일 이러이러하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권리를 버려야 한다. 조건을 걸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자문위원입니다. 당신의 추천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어쩌면 그 중 일부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과 함께하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 끝으로 마리아가 한 일이 한 더 있다. 그녀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 준 말은 틀림없이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격려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덕분에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에게서 찬미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 노래의 전통적 명칭도 찬양한다는 뜻의 첫 단어를 따서 ’마니피캇‘이다. 그녀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예배하고 흠모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라느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시편부터 이사야와 선지서까지 구약을 놀랍도록 두루 꿰어 메시아 하느님의 강림을 계시해 준다. 수태고지는 성경의 신앙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성취다. 이 모든 깨달음이 가능했던 게 그녀가 에리사벳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넷째, 당신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듯했으나 가서 다른 믿는 자매를 보고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면서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다. 물론 마리아처럼 당신도 열심히 생각하고, 솔직하게 의심하고, 결국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그러나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들 없이 일개 개인으로서 그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고민을 아예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 한다. 다 끝난 뒤에 과거 시제로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도 공동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다.
- 보잘것없던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위대해진 것은 순전히 하느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고했고 의심했고 순복했고 남과 소통했

다. 단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